

한·미 대학생의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가 조모-손자녀 간의 친밀도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Korean and American Undergraduate Student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and Aging on Grandmother-Grandchild Intimacy

순천대학교 소비자·가족아동학과

부 교수 이신숙*

Dept. of Consumer and Family-Child Studies, The National Suncheon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Lee, Shin-Sook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Korean and American undergraduate students' intimacy toward the grandmother and their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and aging. The study also identifies the variances that influence undergraduate students' attitudes.

The subjects were 397 Korean and 364 American undergraduates. Statistical analysis was conducted to examine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Cronbach's α , t-test, Duncan test, ANOVA,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1) Both Korean and American undergraduates' attitudes were mid-range, but their intimacy level toward their grandmother was high.

2) The Korean undergraduates' intimacy level differed significantly according to sex and religion, and it showed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and aging traits, when the student had lived with and had frequent contact with the grandmother.

The American undergraduates' intimacy level, however,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presence of the grandmother. There was also had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the undergraduate student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and aging traits, frequency of contact with the grandmother and year.

3) The variables that affect the Korean undergraduates' intimacy level toward the grandmother were attitude, cohabitation with her, gender, frequency of contact with the grandmother, and religion, which explained about 21% of total variance.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and aging traits were very important variables for Korean undergraduates' intimacy with their grandmother. The American undergraduates' intimacy was affected by the variables of attitude, frequency of contact with the grandmother, year, and the presence of the grandmother, which explained about 19% of the total variance. Attitude toward the elderly and aging traits were the most important variables for American undergraduates' intimacy with their grandmother.

△주요어(Key Words) : 한·미대학생(Korean and American undergraduates), 노인과 노화(the elderly and aging), 태도(attitude), 조모-손자녀(grandmother-grandchild), 친밀도(intimacy)

* 주 저 자 : 이신숙 (E-mail : lsi@suncheon.ac.kr)

1. 서 론

인간의 평균수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범 세계적으로 노인인구가 다수를 차지하는 고령화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60년에는 남녀 평균 52.4세에서 2000년에는 75.8세, 2020년에는 80.8세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어 노년기가 길어지는 현상을 낳고 있다(보건복지부, 2003).

이와 같은 인구학적 변화로 3~5세대 등 여러 세대가 한 가족 내에 생존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단산과 더불어 조부모됨의 기간은 과거보다 더 길어지고 있다. 조부모됨은 자발적인 선택은 아니지만 자녀가 없거나 가족을 갖지 않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의 중·후기에 갖는 가족경험 중 하나이다.

조부모는 손자녀에 대해 특별한 권리와 의무가 없기에 순수하게 무상으로 아낌없이 사랑할 수 있고 자신의 흔적으로 여기며 영속성의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마냥 귀엽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여긴다. 손자녀 역시 태어나면서부터 맺게 된 조부모와의 깊은 애정경험은 인생주기에 걸쳐 그들의 심리적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조부모와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 노년기에 대한 예비적 지식을 미리 제공받는 계기를 마련할 뿐 아니라 노인과 노화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도 형성할 수 있게 된다(김태현, 2005).

실제 많은 연구들이 조부모-손자녀 관계의 긍정적인 이점에 대해 논하고 있지만 가족구조가 과거 확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화하게 되고 새로운 가치관이 유입되면서 과거에 비해 조부모-손자녀 간의 접촉이 줄어들고 심리적인 소원함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길어지는 노년기에 대비한 가족 내 노인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조망과 새롭게 등장하는 가족 내 여러 문제(맞벌이, 이혼과 별거, 재혼, 미혼모, 빈곤, 실직, 알콜/약물 중독, 투옥, 질병, 자녀학대와 유기 등)가 조부모에게 가족 지킴이(family watchdog)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또한 가족 내에서 상징적이고도 의례적이었던 주변적 존재에서 벗어나 조부모의 손자녀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손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중요한 가족 자원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조부모-손자녀 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부모대리인으로서의 조부모의 역할과 그 영향에 관한 재조명이 필요하게 된 것이다. 이미 사회적 변화를 우리보다 빨리 경험한 미국에서는 1990년부터 조부모-손자녀 관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극히 미비한 상황이다.

연장자에 대한 존경을 하나의 원칙으로 삼았던 유교문

화권에 있었던 우리의 경우 노인에 대한 전통적 견해는 서구에 비해 보다 긍정적으로 존경과 지혜, 자애로움, 권위적인 측면을 더 부여했었다. 그러나 서구식 물질문명과 개인주의적 사고의 유입은 자유평등 의식을 고취시키면서 노인에 대한 존경심이 줄어들고 노인을 부담으로까지 여기게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 심한데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을 분석한 박경란·이영숙(2001)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긍정적 고정관념에 비해 2배 이상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젊은이에 비중을 두고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던 미국인들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는 대체로 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Brewer et al., 1981; Hummert, 1990; Kogan, 1961; Rosencranz & Mcnevin, 1994) 때에 따라서는 경멸과 싫어함을 공공연히 드러내며 차별대우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Butler, 1995; Palmore, 1999; Rowe & Kahn, 1998).

흔히들 나이든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아프고(병들고), 피곤하고(지치고), 추하고, 느리고, 잘 잊어버리고, 고립되고, 까다롭고, 운둔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무의식중에 작용하는 이러한 고정관념과 태도는 인간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개인들의 기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한편 조부모 중에서 손자녀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조모이다. 조모는 조부다 더 긴 평균수명을 지닌 탓으로 더 오랜 기간을 손자녀와 함께 지낼 수 있을 뿐 아니라 가족 내에서 표현적인 역할을 주도하고 때에 따라서는 부모를 대신해 주는 친족유지자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부보다 손자녀와의 상호작용이 더 빈번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가 서로 다른 한·미 대학생의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와 조모와의 친밀감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고 이러한 태도가 친밀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으로써 조모와의 관계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노인과 노화에 대해 젊은 세대가 갖는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한·미 대학생의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와 조모와의 친밀감 정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2> 한·미 대학생의 조모와의 친밀감은 배경변인과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에 따라 어떠한가?

<연구문제3> 한·미 대학생의 조모와의 친밀감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1. 조모-대학생 손자녀 관계

조부모와 손자녀 관계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갖게 되는 일반적인 가족관계로서 직접적인 의무감이나 책임감이 적은 순수한 사랑과 애정으로 맺어지는 인간관계이다. 조부모는 손자녀에게 자신이 살아오면서 경험한 지혜와 지식을 제공하고 생의 의미와 생산감의 성취라는 만족을 찾을 수 있고 손자녀 역시 조부모를 통해서 인격 성장을 지도 받고 지혜를 전수받으며 심리적인 안정감을 갖고 성장하게 된다. 따라서 우호적이고 밀접한 조부모-손자녀 관계는 조부모나 손자녀 모두에게 유익하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배경미, 1988; 서동인, 1989, 1991; 이영숙·박경란, 2000; Kornharber, 1985; Thorson, 2000). 가족의 입장에서도 친밀한 조부모-손자녀 관계는 가족의 결속력을 증가시키고 가족의 역사를 계승시키며 가족에 대한 소속감을 강화시켜 가족 정체감 형성에 기여하게 된다(홍숙자, 2004).

조부모-손자녀 관계는 정서적인 측면에서 부모-자녀 관계 다음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실증적인 연구들은 조부모가 손자녀에 미치는 사회화의 영향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Kivnick(1982)와 Baranowski(1982)는 손자녀는 조부모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심리적인 발달이 촉진되며 조부모와 손자녀의 밀접한 유대관계는 가족원들을 결속시키고 소속감을 만들어주며 결국에는 가족원의 정체감에 기여한다고 하였다. Kornhaber와 Woodward(1981)도 조부모는 손자녀와의 애착을 통해 고독감을 완화하며 손자녀의 양육을 통해서 친밀감이나 사랑, 삶의 의미발견, 가족원간의 관계개선을 긍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손자녀와 밀접하고 의미있는 접촉은 노년기의 가치있는 과업이라고 하였다. 또한 가사일을 도와준다거나 손자녀를 돌보는 일 등 성인자녀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 조부모의 사회적 정체감 향상에 도움을 주는데 이것은 사회적 역할이 축소되어 가는 노년기에 의미 있는 활동의 하나로써 지적될 수 있다. 활동이론(Atchley, 1988)은 이렇듯 노년기에 능력에 맞는 적절한 활동을 함으로써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유지하여 궁극적으로 생활만족도의 향상을 꾀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손자녀 역시 조부모와의 높은 친밀감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안정되며 자신의 자아정체감을 찾게 되고 또래 및 성인과의 사회적 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갖게 된다. 그러나 조부모-손자녀 관계에 대한 관심은 주로 손자녀의 어린 시기에 집중하여 노부모가 성인자녀에게 제공하는 손자녀 돌보기와 같은 양육역할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

는가 하면 부모세대의 사망 등의 여러 이유로 인해 조부모가 부모역할을 대신하는 대리부모 역할에 관한 연구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조부모-손자녀 관계는 한시적이지 않고 조부모가 생을 마감하는 시기에 막을 내리기 때문에 아동기 이후의 손자녀와 조부모 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연구해 볼 필요가 많다. 물론 손자녀가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는 조부모와 함께 하는 시간도 줄어들고 관계도 소원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다. 다시 말해 손자녀가 어릴 적에는 조부모가 돌보아 주고 때에 따라서는 놀이상대가 되기도 하며 정서적 지지 역할을 하게 되지만 손자녀가 성장하게 되면서부터는 조부모와는 다른 문화권에 생활하게 되고 그러다보면 관계는 점점 소원하게 된다는 것이다. Kahana와 Kahana(1971)의 연구에서도 4~5세의 손자녀들은 자기들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고 선물을 주는 조부모를, 8~9세의 손자녀들은 함께 즐거움으로 시간을 보내는 조부모를 선호하나 11~12세의 손자녀들은 이미 조부모와 거리를 두고 함께 지내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조부모의 손자녀에 대한 감정도 손자녀의 성장에 따라 달라지는데 조부모들은 아무런 조건 없이 따르는 어린 손자녀를 좋아하며 손자녀의 나이가 많아질수록 서로 간에 소원해진다(서동인, 1991에서 재인용). 그러나 Hagestad(1985)를 비롯한 여러 학자들은 조부모-손자녀 간의 상호작용과 교환은 생애에 걸쳐 지속적으로 일어나 애정, 의무, 도움의 많은 양이 서로 간에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여기에는 지리적 근접성, 조부모와 부모 간의 관계, 조부모의 건강상태, 부모의 결혼상태, 종교와 같은 변수들이 영향을 미친다.

조부모와 청년기 또는 청소년 손자녀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조부모와 어린 손자녀 관계의 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으나 최근 들어 가족의 변화에 따라 청소년 손자녀의 양육자와 대리 부모로써 조부모에 대한 연구가 늘고 있다. 청소년 손자녀와 조부모 간의 연구(박의순, 1990; Cherlin & Furstenberg, 1986; Hartshorne & Manaster, 1982; Hoffman, 1980; Robertson, 1975; Troll, 1983)에서는 그들 간에 이루어지는 애정, 의무, 도움, 충고, 지지 등의 많은 양의 교환을 발견하였다. 또한 청소년 손자녀는 조부모에 대해 도덕심과 의협심이 강하며 그 어떤 시기보다 조부모를 섬기려는 태도가 강하고 조부모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진 못해도 조부모와는 상당한 친밀감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Baranowski(1982) 역시 청년기 동안의 조부모-손자녀 간의 결속은 삶의 경험이 많은 조부모로부터 문화적 지식과 가족 역사를 전달받음으로써 친밀하고 개인적인 관계를 갖고 있으며 시간과 경험과 삶의 연결 즉 현재와 과거 뿐 아니라 조부모를 통하여 미래를 보게 해 준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조부모는 가족 역사와 근원, 문화적 배경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청소년 또는 청년기 손자녀에게 전해 주고 대화를 나눔으로써 인간관계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제공해 준다. 다시 말해 조부모는 어린 손자녀에게는 돌봐주기, 선물하기, 함께 놀아주기 등의 양육적 행동이 지배적으로 나타나지만 손자녀가 성장할수록 심리적이며 정서적인 측면의 역할이 많아지면서 그들 간의 관계는 지속된다. Mueller et al.(2002)의 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부모-손자녀 관계 연구에서도 조부모와 청소년 손자녀 간에는 도구적 도움, 조언, 손자녀의 미래 의논하기, 공유된 활동, 친밀감에서 여전히 끊임없는 도움을 주고받고 있다고 하면서 상호교환의 정도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조부모형, 지지적 조부모형, 권위중심적인 조부모형, 수동적인 조부모형, 분리된 조부모형으로 조부모유형을 분류하였다. Robertson(1978)의 연구에서도 청소년 손자녀는 조부모를 역할모델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조부모와의 친밀도는 조부모에 대한 정보의 정도, 손자녀가 조부모를 닮고자 하는 지각의 정도에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조부모-청소년 손자녀 간의 관계는 손자녀가 어릴 적에는 일방적이었던 조부모의 역할에서 벗어나 상호적인 측면으로 발전하는데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Cherlin과 Furetenberg(1986)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손자녀가 필요할 때 도움을 주거나 심부름, 집안일 거들어 주기 등의 서비스를 해 주고 조부모는 대신 손자녀를 훈육하고 손자녀의 문제를 토론하는 등 충고자로서의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홍숙자, 2004에서 재인용).

가족구성원 사이의 심리적 거리감을 측정한 연구들은 조부모-손자녀 간의 관계 역시 접촉이 많을수록 감정적으로 가까우나 그렇지 못하면 조부모는 규범적인 역할에 따라 관념적이고 상징적인 경향만이 있다고 하였다(윤진·조석미, 1980; Matthews & Sprey, 1985).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조부모 중에서 조부모보다는 조모가 손자녀와 관계가 더 가깝고 상호작용의 양도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김재은(1974), 윤진과 조석미(1980)의 연구에서도 가족관계는 부측과 모측으로 양분되는데 그 중에서 조모는 중간거리에 위치하나 조부는 며느리와 함께 멀리 떨어져 있어 우리나라의 가족관계에서 조모는 조부보다 가까운 존재로 지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심리적 거리감은 조부모 역할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는 점으로 이해 할 수 있는데 조모와 손자녀 간은 좀 더 실제적인 가정 내 역할에서 조부는 좀 더 주변적인 것으로 손자녀의 관심이나 활동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조모에 대한 태도와 조모-손자녀 관계

노인이 되어가는 과정인 노화의 상태는 외모, 골격 및 근육, 소화, 호흡, 순환기관, 감각기관 등의 신체구조와 기능면에서 퇴화와 병리현상을 나타내는 생물학적 노화, 기억력, 추리력, 지각사고능력 등이 변화되어 가는 심리적 노화, 규범, 기대, 사회적 지위 및 역할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회적 노화로 대별된다. 이러한 제반 현상을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 있는 노인들이 경험하게 되고 이와 같은 노년기에 갖는 상실과 쇠퇴의 특성이 노인에 대한 인식에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쉽다. 따라서 나이가 들면 일반적으로 피곤하고, 쉽게 아프며, 성적으로 흥분되지도 않고, 매사에 잘 잊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학습하기에 어려워지며, 잔소리가 많고, 위축되고, 고립되며, 비생산적이고, 방어진이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노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고정관념은 세대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더 나아가 해결하기 어려운 노인문제를 야기한다. 일반적으로 노인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태도는 신체적인 감퇴나 변화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노인들의 다양성을 무시하고 획일적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Heckhauser(1989)에 의해 행해진 생애발달에 관한 연구에서는 바람직한 특성으로 여겨지는 "경험, 박식, 정신적 건강, 친절, 정직"이 오히려 70-80대에 증가한다고 하였고 노인의 정신 활동 정지연령을 조사한 Dorland의 연구에서도 인간의 평균 사업정지 연령은 66.7세라고 밝히고 있어 오히려 인생 후반이 갖는 바람직한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김태현, 2005에서 재인용).

노인의 지위하락을 설명한 현대화이론은 산업화와 도시화로 상징되는 현대화 과정 속에서 노인의 사회적 역할은 급격히 감소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의 노인은 권력과 권위를 지닌 존경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외롭고 의존적인 존재로 전락된다. 실제 많은 연구결과들은 노인에 대한 사실인지가 제대로 되지 않고 대부분 편견과 부정적인 고정관념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김은경, 2003; 박경란·이영숙, 2001; 서병숙·김수현, 1999; 한정관, 2000; Bulter, 1995; Palmore, 1999; Pinguart et al., 2000; Rowe & Kahn, 1998).

이러한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경향은 청년기에 더욱 증가되는데 이선자(1989)는 아동기에 노인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다가 연령증가에 따라 부정적인 태도가 가속화된다고 하였다.

서구나 미국인들의 경우에는 노인에 대한 태도가 유교 문화를 믿었던 우리의 경우보다 대체적으로 더 부정적일 수 밖에 없는데 많은 선행연구들(Chamberlain et al., 1997;

Davidson et al., 1995; Jants et al., 1977; Mitchell et al., 1985; Seefeldt, 1989)은 나이든 사람에 대한 고정관념으로 아프고(병들고), 피로하고(지치고), 추하고, 느리고, 잘 잊어버리고, 까다롭고, 은둔하는 경향이 많다고 하였다.

그러나 일부 연구(신귀연, 1995; 옥은진, 1990; 윤성혜, 1990; 최춘혁, 1992; Palmore, 1999)들은 앞에서 거론한 바와 같이 노인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이라고 하면서 노인에 대한 태도는 이전에 맺었던 노인과의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주변의 노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조부모 등 가까운 노인에 대해서는 따뜻하고, 재미있고, 즐겁고, 애정적이며, 도움을 주는 존재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Hawkins(1996)도 친척과 가깝게 지낼수록, 그리고 친척 외에 가깝게 지낸 노인이 있을수록 노인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이라고 하였다. 마찬가지로 조부모와의 관계나 조부모에 대한 지각 등 손자녀 등이 경험한 노인과의 관계의 질이 노인에 대한 태도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이선자, 1989; Franks et al., 1993; Janelli, 1988). 김혜경(1997)도 조부모와의 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 즉 노인과의 긍정적인 관계경험의 정도가 노인에 대한 태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능력있는 조부모와의 접촉은 아동 및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 긍정적인 기여를 한다는 것이다. 김은경(2003)의 연구에서는 조부모와 많은 대화를 한 여대생일수록 남녀노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다. 또한 조부모와 과거 동거경험이 남자노인에 대한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동거를 통한 노인과의 불만족스런 경험이나 불쾌한 접촉이 오히려 노인에 대해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 형성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족 내에 가깝게 위치하고 있는 조부모라고 지적하고 있어 조부모와의 관계가 노인에 대한 태도에 중요한 결정인자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노인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노인과의 관계를 가깝게 하는 요인이 된다. 즉 노인세대에 대한 고정관념과 부정적인 의식이 없는 젊은 세대는 노인과의 긍정적인 접촉을 가져온다. 김은경(2003)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조사대상의 44.5%가 노인에 대한 태도에 가장 영향을 미친 사람은 조부모라고 응답하고 있어 조부모와의 관계가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해 가지는 태도에 매우 중요함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조부모에게 전화를 자주 할수록 그리고 조부모를 친밀하게 여길수록 노인에 대한 행동이 긍정적으로 된다는 김윤정과 정선아(2001)의 연구가 뒷받침하고 있다.

3. 조모-손자녀 간의 친밀도에 대한 관련변수

1) 친조모, 외조모의 여부

우리의 친족구조는 부계와 처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부계는 권리와 의무로 특징지어지는 사회적 관계인 반면 처계는 애정적 유대감이 높은 정서적관계로 인지되고 있다. 따라서 친족의 여부는 조부모-손자녀 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어머니와 딸 간의 관계는 생활영역과 관심사가 같다는 면에서 강력한 애정관계를 이루고 있고 출가한 딸의 양육행동에 어머니는 직·간접으로 긴밀하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신기영, 1991). 따라서 거기에서 비롯되는 외조모와 손자녀의 관계는 모녀관계와 더불어 친밀하게 된다(유안진, 1994; King & Elder, 1995). 그러다 보니 모계 조부모가 부계 조부모보다 손자녀에게 많은 양의 개입을 하게 되고 가장 좋아하는 손자녀로는 외손자를 그리고 손자녀가 가장 좋아하는 조부모는 외가 측을 들고 있다. 이러한 경향이 서구에서는 더욱 심한데 아무래도 여성이 남성보다는 자신의 출생가족에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친족유지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어머니와 딸 간의 관계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갖는 고부갈등의 국면도 없어서 가족의 모계선을 통한 유대는 강력하여 세대 간의 관계는 “모계중심의 기울기”를 갖는다.

남녀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Hoffman(1980)과 Hartshorne과 Manaster(1982)도 대학생들이 가장 가까운 조부모로 손꼽는 사람은 외조모였으며 그 다음이 친조모라고 하였다. 국내의 서동인(1991)의 연구에서도 손자녀들은 친조모보다는 외조모가 대면적 만남이나 전화를 통한 접촉이 빈번하고 손자녀의 조모에 대한 친밀도에서도 친조모보다는 외조모와 더욱 친밀한 유대를 갖는다고 하였다. 박의순(1990) 역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대학생 손자녀가 가장 좋아하는 조부모는 조모였으며 그 중에서도 외조모는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고 하였다.

세대관계에 있어서 모계측의 잇점을 Hagestad(1985)와 Rossi와 Rossi(1990)는 “친족유지(kinkeeping)”의 결과라고 하면서 조부모-손자녀 관계의 질에는 중간세대인 모계측의 고리역할이 중심적임을 강조하고 있다. 조모들은 지지와 도움을 통해 그들의 딸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고 딸들 역시 노모에 대한 지지활동에 우선적인 책임을 가짐으로써 그들 간의 관계는 우호적이 되고 그 딸이 낳은 손자녀와의 관계는 밀접하게 되는 것이다.

2) 조모와의 동거여부와 접촉빈도

조모와의 동거여부는 조모-손자녀 관계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작용하는데 이에 대한 연구의 결과는 상반되고

있다. 먼저 조모와의 동거가 손자녀 간의 관계에 긍정적이 다라고 한 연구들은 손자녀와 동거하는 조모는 동거하지 않은 조모에 비해 양육을 통해 장기간 손자녀를 돌본다는 가 놀이나 게임 등의 공유활동을 더 많이 함으로써 손자녀와의 관계가 가깝다고 지적하고 있다(서동인, 1989; 박경란 · 이영숙, 2001). 백문화(1992), Matthews와 Sprey(1985)의 연구에서도 조모와 동거했던 청소년이 조모를 더 가깝게 여기고 있었고 Roberto(1990)도 손자녀와 가깝게 살면서 대면 접촉 빈도가 많을 때 조모가 손자녀를 돌봐주고 충고해 주며 가족의 역사와 전통을 더 많이 가르쳐 준다고 하였다. 이렇듯 손자녀와 동거하는 조모는 손자녀에 대해 더 많은 역할수행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박화윤 · 이영숙, 1999; 서동인, 1989; 이미숙 등, 2004) 손자녀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조부모와의 관계는 더 향상되어 간다고 하였다. 서동인(1991), 박의순(1990)의 연구에서도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대학생이 지각하는 조모와의 관계는 조모와 동거하는 경우가 동거하지 않는 경우보다 친밀도 점수가 높았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동거로 인한 잦은 접촉이 오히려 친밀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관계가 악화된다고 Tinsley & Parke(1983)는 주장한다. 따라서 조부모-손자녀 간에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접촉하는 것이 친밀도에는 더욱 효과적임을 강조하며 '거리를 둔 친밀감'을 강조한다.

조부모와 손자녀가 동거하지 않더라도 빈번한 시각적 접촉이나 전화접촉이 조부모와의 관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데(Creasey & Koblewski, 1991) 대부분의 조부가 가장 친밀하게 느끼는 손자녀는 자주 접촉하는 손자녀이고(Kivett, 1985) 전화에 의한 접촉이 잦을수록 손자녀가 조모를 더 친밀하게 지각하는 것으로(김연수, 1994) 알려져 있어 조부모와 손자녀의 물리적 · 심리적 거리가 조손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큼을 알 수 있다.

3) 성별

성별은 조모-손자녀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가족관계에서 조부는 손자와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 관계는 조모와 손녀와의 관계보다 더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부는 친손자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며 특히 3대가 한집에 모여 살 때 손자의 사회화에 아버지와 더불어 보탬이 되기도 한다. 한편 청소년기의 여자들은 외조모를 가장 좋아하는 조부모로 여겨 외조모-손녀 간의 관계는 각별하다고 할 수 있다(Kahana & Kahana, 1971). Hoffman(1980)의 여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여대생들이 가장 가깝게 여기는 조부모는 외조모라고 답한 바 있다.

국내의 조석미(1981)의 노인층 의식구조 연구에서는 외손자보다는 친손자를, 손녀보다는 손자를 더욱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우리가족의 가부장적인 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박의순(1990)의 연구에서는 손자녀의 성은 조모-손자녀 관계에 영향이 없는 변인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조부모의 성이 손자녀와의 관계에 영향력이 있다고 하였다.

4) 기타 변인

위의 변인 이외에도 선행연구는 매우 적으나 종교, 연령(학년), 자원봉사 경험 등의 변인과 조모와의 친밀감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먼저 종교에 있어서는 한 · 미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신숙 · Sonia, 2005)에서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대학생들이 노인에 대한 태도에서 매우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으며 과거로부터 유교를 믿었던 우리의 경우에도 연장자를 존경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점, 기독교나 불교와 같은 모든 종교가 자비와 사랑을 강조하며 부모-자식 간에도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과 박애정신을 강조하고 있다(고영복, 1983)는 점에서 종교는 조모와의 친밀감과 관련이 깊다. 또한 손자녀의 연령(학년)은 조모-손자녀 관계에 다양성을 보이는데(Kahana & Kahana, 1970) 조모는 어린 손자녀를 좋아하고 손자녀 역시 어린 시절에는 마냥 귀여워해 주는 조모를 좋아하나 나이가 들수록 소원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은 사춘기에 더욱 심해지다가 청년기에 도달할 즈음에는 다시 조모와의 관계가 매우 밀접해져 감정적으로 매우 가까움을 느낀다(Hoffman, 1980). 한편 노인시설에서의 자원봉사와 같은 노인과의 경험은 노인에 대한 태도 형성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와 노인과의 관계가 원만함을 알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한국의 S시 소재의 S 대학교 학생과 미국의 S시 소재의 U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한국의 S 대학교의 학생들은 2003년 9월부터 11월까지 5개 단과대학의 전 4개 학년의 학생을 의도적으로 추출한 유의표집을 통하여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는 본 연구자의 수업과 타 교과목의 강의시간을 할애 받아 본 연구자의 주도하에 이루어졌다. 한편 미국의 U대학교의 학생들은 2004년 10월부터 2005년 3월에 걸쳐 조사가 이루어졌는데 현지 대학교의 가족학 수업을 받는 학생들은 본 연구자의

주도하에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그 이외의 학생들은 훈련된 3명의 조사원에 의해 면접을 통해 조사되었다. 조사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국내의 학생으로부터는 조사된 질문지 중 총 397부가 그리고 미국의 학생들로부터는 조사된 질문지 중 총 388부가 회수되었으나 조모-손자녀 관계에 대해 충실한 응답을 한 364부를 본 연구를 위한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조사도구

본 연구를 위한 조사도구는 구조화된 질문지이다. 질문지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는 일반문항과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문항 그리고 조모-손자녀 간의 친밀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각 척도의 내용과 작성과정 및 신뢰도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는 척도

노인에 대한 태도를 알아보는 척도는 Sanders 등(1984)이 개발한 것으로 노인의 특성을 표현하는 양 극단의 반대되는 형용사에 대해 그 정도를 응답하게 하는 20쌍의 의미분별 척도(Semantic Differential Scaling)를 사용하였다. 태도는 각 문항에 대해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여 답하게 하였는데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며 점수의 합이 낮을수록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임을 의미하였다(최저: 20점~100점: 최고). 그리고 각 항목에 대한 응답점수가 2.5점에서 3.5점까지를 그리고 각 항목의 점수의 합이 50점에서 70점까지를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가 중립적이라고 해석하였다. 이 척도의 문항간 내적 일치도는 Cronbach's $\alpha=0.89$ 였다.

2) 조모-손자녀 간의 친밀도

조모-손자녀 간의 친밀도는 Walker와 Thompson(1983)에 의해 만들어진 Intimacy Scale(IS)를 우리의 실정에 적합하도록 수정·변안하여 사용하였다. 척도는 총 15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친조모와 외조모에게 동일한 척도로 응답케 하여 그 점수의 합을 조모와의 친밀감 점수로 해석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구성하여 답하게 하였는데 점수의 합이 높을수록 조모-손자녀 간의 친밀도가 높은 것을 의미하며 점수의 합이 낮을수록 친밀도가 낮은 것으로 해석하였다(최저:30점-150:최고). 그러나 현재 조모가 생존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거 조모와의 경험을 기억을 통해 유추하도록 하였다. 친밀감 척도의 문항간 내적 일치도는 Cronbach's $\alpha=0.85$ 이었다.

3) 배경변인

본 연구의 배경변인으로는 조모-손자녀 간의 친밀도와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리라 사료되는 성별, 전공, 학년, 가족의 경제상태(월 평균수입), 종교, 자원봉사 경험, 접촉횟수, 현재 조모와의 동거유무, 과거 조모와의 동거경험, 동거기간 등을 알아보는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녀대학생을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전공과 학년은 조사대학교에 위치한 모든 전공과 4개 전 학년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경제상태는 가족의 월 평균수입을 조사함으로써 알아보았다. 종교는 개방형 질문을 통하여 조사하였는데 먼저 '유', '무'로 구분한 다음 '유'인 경우에는 어떤 종교를 믿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자원봉사의 경험과 현재 및 과거 조부모와의 동거유무는 '있다', '없다'에 답하게 하였으며 과거 조부모와의 동거유무는 친조모와 외조모 두 경우를 모두 포함시켰다. 조모와의 접촉빈도는 '거의 만나지 않음', '1년에 3-4번', '1달에 1-2번', '거의 매일'에 답하게 하였으며 동거기간은 '1년 미만', '1-3년 미만', '3-5년 미만', '5년 이상'에 답하게 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SAS PC+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다.

2) 조사대상자의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와 조모-손자녀 간의 친밀도의 정도 및 그들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 t-test를 하였으며 배경변인과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에 따른 친밀감의 정도 그리고 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ANOVA), F(t) 검정 그리고 상관관계(Correlation)를 구하였다.

3) 조모-손자녀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한·미 대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

한·미 대학생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2. 한·미 대학생들의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와 노모-손자녀 간의 친밀도의 정도

1) 한·미 대학생들의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

한·미 대학생들의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와 노모-손자녀 간의 친밀도의 정도가 다음 <표 2>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표 2>에서와 같이 한국대학생들의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점수는 64.8점이었으며 미국대학생들의 태도

점수는 70.1점으로 미국대학생들의 태도점수가 한국대학생들의 태도점수보다 더 높았다. 이들 점수는 노인과 노화에 대한 중립적인 태도점수인 50점~70점 사이에 있거나 약간 높은 점수로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가 중립적이거나 비교적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미국대학생들의 태도점수가 한국대학생들의 태도점수보다 높은 결과는 선행연구(이신숙·Sonia, 2005)에서도 지적했듯이 미국대학생들의 표집 지역이 대가족의 가족유형을 고집하며 가족의 유대감을 우선의 가치로 삼는 물몬교가 자리잡고 있는 도시였다는

<표 1>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변 인	구 분	한국 대학생(N=397)	미국 대학생(N=364)	
		N (%)	N (%)	
성 별	남	180(45.3)	161(44.2)	
	여	217(54.7)	203(55.8)	
전 공	자연 과학	84(21.1)	63(17.3)	
	인문·사회과학	99(24.9)	158(43.4)	
	사범대	60(15.1)	25(6.9)	
	공 대	79(19.9)	13(3.6)	
	농 대	75(18.9)	-	
	예술대	-	18(4.9)	
	상 대	-	80(22.0)	
미결정	-	7(1.9)		
학 년	1 학년	150(37.8)	53(14.6)	
	2 학년	102(25.7)	72(19.8)	
	3 학년	94(23.7)	103(28.3)	
	4 학년	51(12.8)	136(37.4)	
가족의 경제상태	100만원 이하	51(12.8)	73(18.4)	
	101~200만원 이하	114(28.7)	128(32.2)	
	201~300만원 이하	140(35.3)	103(28.0)	
	301만원 이상	92(23.2)	63(13.6)	
종 교	유	209(52.6)	89(24.5)	
	무	188(47.4)	83(22.8)	
	물몬교	-	192(52.7)	
자원봉사여부	유	152(38.3)	166(45.6)	
	무	245(61.7)	198(54.4)	
접촉 횟수	친조모	거의 만나지 않음	76(19.1)	118(32.4)
		1년에 3~4번	150(37.8)	99(27.2)
		1달에 1~2번-거의 매일	171(43.1)	147(40.4)
	외조모	거의 만나지 않음	53(13.4)	135(37.1)
		1년에 3~4번	264(66.5)	82(22.5)
		1달에 1~2번-거의 매일	80(20.2)	147(40.4)
현재 동거여부	친조모	동 거	67(16.9)	2(0.5)
		별 거	254(64.0)	275(75.5)
		안 계심	76(19.1)	87(23.9)
	외조모	동 거	9(2.3)	11(3.0)
		별 거	337(84.9)	268(73.6)
		안 계심	51(12.8)	85(23.4)
과거 조모와의 동거경험	유	236(59.4)	112(30.8)	
	무	161(40.6)	252(69.2)	
동거기간	5년 미만	90(22.7)	78(21.4)	
	5년 이상	146(36.8)	25(6.9)	

점에서 그 결과의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표 3>과 같이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점수에 있어 한국대학생들은 관대한, 신뢰할 수 있는, 친절한, 낙관적인, 현명함에 높은 점수를 주었고 개방적, 건강한, 활동적인, 매력적인, 생산적인, 독립적인 특성에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반면 미국대학생들은 현명한, 신뢰할 수 있는, 박식한, 좋은, 관대함에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고 개방적인, 매력적인, 융통적인, 활동적인, 건강한 순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한국대학생들은 노인들이 갖는 성격적인 측면에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고 미국대학생들은 노인들이 갖는 지적인 영역에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노화로 인해 노인들의 신체적인 측면, 즉 건강하지 못하고 비활동적이며 생산적이지 못하다라는 항목에는 한·미 대학생 태도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한·미 대학생들의 조모-손자녀 간의 친밀감

한·미 대학생들의 조모-손자녀 간의 친밀감의 정도가 다음 <표 2>에 나타나 있다. 표에서와 같이 한국대학생들의 조모에 대한 친밀감의 정도는 103.9점이었고 미국대학생들은 117.6점으로 미국대학생들이 조모에 대해 친밀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최대:150점~30점:최소). 이들 점수는 친밀감 점수의 중앙치인 90점을 상회하는 점수로 조모에 대한 친밀감이 양국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모를 혈연관계로 세분하여 살펴보면 한국대학생들은 친조모에 대해서는 50.8점이고 외조모에 대해서는 53.1점으로 외조모에 대해서 더 높은 친밀감을 지니고 있었다. 미국대학생들 역시 친조모에 대해서는 56.8점, 외조모에 대해서는 60.8점으로 외조모에 대해서 더 많은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친조모와 외조모 모두에서 미국대학생들이 한국대학생들보다 조모와의 관계가 더 밀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와 노모-손자녀 간의 친밀도

	한국대학생 (N=397)		미국대학생 (N=364)		t 값
		M (SD)		M (SD)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		64.8(9.5)		70.1(9.3)	-2.5***
조모-손자녀 간의 친밀감	친조모	50.8(12.7)		56.8(12.4)	-3.1***
	외조모	53.1(11.2)		60.8(12.0)	-4.0***
	총 점	103.9(19.1)		117.6(12.2)	-6.4***

***p<.001

<표 3>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점수의 서열

서열	한국 대학생 (N=397)		미국 대학생 (N=364)	
	문항 내용	M(SD)	문항 내용	M(SD)
1	관대한 - 이기적인	3.95(0.98)	현명한 - 우둔한	4.29(0.70)
2	신뢰할수 있는 - 신뢰 할 수 없는	3.91(0.87)	신뢰할수 있는 -신뢰 할 수 없는	4.25(0.74)
3	친절한 - 불친절한	3.84(0.90)	박식한 - 우둔한	4.22(0.72)
4	낙관적인 - 비관적인	3.82(0.97)	좋은 - 나쁜	4.15(0.73)
5	현명한 - 우둔한	3.76(0.93)	관대한 - 이기적인	3.96(0.84)
6	호의적인 - 비 호의적인	3.73(0.88)	친절한 - 불친절한	3.95(0.79)
7	좋은 - 나쁜	3.69(0.91)	재미있는 - 재미없는	3.73(0.84)
8	긍정적인 - 부정적인	3.37(0.88)	깔끔한 - 지저분한	3.72(0.85)
9	박식한 - 무식한	3.35(0.84)	호의적인 - 비 호의적인	3.72(0.72)
10	만족한 - 불만족한	3.22(0.94)	긍정적인 - 부정적인	3.55(0.74)
11	깔끔한 - 지저분한	3.07(0.88)	만족한 - 불만족한	3.45(0.85)
12	행복한 - 슬픈	3.05(0.84)	행복한 - 슬픈	3.42(0.76)
13	재미있는 - 재미없는	3.01(0.91)	낙관적인 - 비관적인	3.40(0.96)
14	융통적인 - 융통적이지 못한	2.95(0.95)	생산적인 - 비생산적인	3.39(0.83)
15	독립적인 - 의존적인	2.84(0.96)	독립적인 - 의존적인	3.31(0.91)
16	생산적인 - 비생산적인	2.82(0.94)	건강한 - 건강하지 못한	2.88(0.82)
17	매력적인 - 매력적이지 못한	2.81(0.80)	활동적인 - 비활동적인	2.86(0.83)
18	활동적인 - 비활동적인	2.69(0.94)	융통적인 - 융통적이지 못한	2.72(1.00)
19	건강한 - 건강하지 못한	2.59(0.90)	매력적인 - 매력적이지 못한	2.69(0.89)
20	개방적인 - 보수적인	2.34(0.98)	개방적인 - 보수적인	2.40(0.99)
총 점		64.8(9.5)		70.1(9.3)

이러한 결과는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이 더 우세한 미국의 문화적 상황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였으나 표집지역의 특수성(물몬교의 성지가 자리잡고 있는 도시에서 표집)을 고려할 때 종교적 신념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양국에서 같은 결과를 나타낸 손자녀는 친조모보다 외조모에게 심리적 친밀감을 더 느낀다는 결과는 중간세대인 어머니의 영향과 가족관계(친가는 권리와 의무가 강조되며 외가는 친밀하고 비형식적인 성격을 지님)가 갖는 특성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박의순, 1990; 민하영, 2004; 서동인, 1991; Hartshorne & Manaster, 1982; Hoffman, 1980)의 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석미(1981)의 연구에서는 조부모들은 외손자보다는 친손자를 더 가깝게 여긴다고 하였다.

3) 한·미 대학생들의 배경변인과 태도에 따른 친밀감
한·미 대학생들의 배경변인과 태도에 따른 친밀감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명목변수는 변량분석을 그리고 서열변수는 상관관계를 한 결과를 <표 4>에 제시하였다. 표에서와 같이 한국대학생들은 성별(F=7.72, P<.001), 종교(F=6.92, P<.01)에 따라 집단 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r=.3817, P<.001), 조모와의 동거기간(r=.2453, P<.001), 친조모와의 접촉빈도(r=.1752, P<.001)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종교가 없는 학생보다 조모와의 관계는 더 친밀하였다. 그리고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조모와의 동거기간이 더 길수록, 친조모와의 접촉빈도가 많을수록 조모와의 유대감은 높았다.

한편 미국대학생들은 현재 친조모와의 동거여부(F=4.00, P<.05)에 따라 집단 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r=.3370, P<.001), 친조모와의 접촉빈도(r=-.1890, P<.001), 학년(r=.1312, P<.01)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친조모와 별거하고 있는 대학

<표 4> 배경변인과 태도에 따른 조모-손자녀 간의 친밀도

변인	구분	한국대학생(N=397)			미국대학생(N=364)			
		M(SD)	Dun.	t/F 값	M(SD)	Dun.	t/F 값	
성별	남	106.5(20.6)	A	7.72**	117.5(21.4)	A	0.17	
	여	101.7(17.6)	B		117.7(8.8)	A		
단과대학	자연대	103.4(19.3)	A	1.38	119.7(16.3)	A	1.69	
	인사대	102.0(18.8)	A		119.7(19.3)	A		
	사범대	102.5(16.7)	A		116.7(17.7)	A		
	공대	104.2(22.0)	A		115.4(13.4)	A		
	농대	107.8(17.7)	A		-			
	예술대	-			104.2(17.2)	A		
	상대	-			116.3(24.5)	A		
	미결정	-			114.0(21.2)	A		
종교	불몬교	-		6.92**	119.8(18.1)	A	2.05	
	유	106.1(19.9)	A		115.3(22.0)	A		
	무	101.5(18.9)	B		114.6(21.5)	A		
자원봉사 여부	유	103.7(18.4)	A	0.03	118.0(20.2)	A	0.20	
	무	104.0(19.6)	A		117.2(19.8)	A		
현재 조모와의 동거여부	친조모	동거	105.4(20.2)	A	0.60	109.0(18.4)	A	4.00*
		별거	104.0(18.8)	A		119.3(18.5)	B	
		안계심	102.2(19.1)	A		112.6(23.5)	A	
	외조모	동거	108.6(14.8)	A	0.47	116.2(17.4)	A	0.30
		별거	103.6(19.3)	A		118.3(18.9)	A	
		안계심	105.0(19.0)	A		117.8(19.6)	A	
과거 조모와의 동거여부	유	104.9(19.2)	A	1.84	117.4(22.4)	A	0.95	
	무	102.5(19.0)	A		117.7(8.8)	A		
학년			r = -.0084			r = .1312**		
경제상태			r = -.0165			r = .0087		
접촉빈도(친조모)			r = .1752***			r = -.1890***		
(외조모)			r = -.0274			r = -.0225		
조모와의 동거기간			r = .2453***			r = -.0097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			r = .3817***			r = .3330***		

*p<.05, **p<.01, ***p<.001

생들이 동거하고 있는 대학생들보다 조모와의 관계는 긍정적이었으며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친조모와의 접촉빈도가 낮을수록, 고학년일수록 조모와의 관계는 친밀하였다.

한·미 대학생 모두가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 때 조모와의 관계가 가까웠다는 본 연구결과는 Walker와 Thompson(1983)의 연구에서 대학생 손녀들이 외조모에 대해서 갖는 친밀감이 모의 외조모에 대한 태도에서 차이가 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결국 모의 태도는 손녀의 외조모에 대해 갖는 태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또한 한국대학생들의 경우 친조모와 접촉빈도가 높을 때 조모와의 친밀감이 높다는 본 연구 결과는 조모와 손자녀 간에 규칙적인 접촉이 있을 때 관계는 역동적이지만 그렇지 않고 접촉빈도가 낮을 때 서로 간의 관계는 관념적일 수밖에 없다고 사료된다. 서동인(1989)의 연구에서도 접촉빈도는 조모의 역할수행에 유의한 변인임을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조모와의 동거기간이 길어질 때 조모와의 친밀감이 높았던 것은 조모와의 잦은 접촉으로 인해 유대감 형성이 용이하고 노인과 노화에 대한 경험의 기회가 많아져 노인과 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한국대학생의 경우

이고 미국대학생의 경우에는 오히려 친조모와의 접촉빈도가 낮을 때 친밀감이 높아지고 있어 미국의 경우에는 접촉빈도가 친밀도와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적당한 접촉빈도가 조모-손자녀 간의 관계에는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대학생의 경우 친조모와의 접촉이 중요한 반면 미국대학생의 경우에는 친조모와의 거리감이 오히려 친밀도에 정적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결과는 직계가족을 가족형태의 이상형으로 여겼던 우리의 가족의 특성을 반영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리적 근접성이 관계의 기능적 유대에 정적영향을 준다는 연구결과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는 혼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4) 조모-손자녀 간의 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제 변인의 상대적인 영향력

표에서와 같이 한국대학생의 조모와의 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beta=0.3441$), 동거기간($\beta=0.2069$), 성별($\beta=-0.1178$), 친조모와의 접촉횟수($\beta=0.1061$), 종교($\beta=0.1038$)의 순이었으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21%이었다. 그 중에서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는 13%의 설명력을 나타내어 영향력이 가장 높은 변수로 나타났다. 즉,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가 긍

<표 5> 노모-손자녀 간의 친밀도에 대한 제 변인의 영향력

변인	한국대학생(N=397)			미국대학생(N=364)		
	B	β	R ² (step)	B	β	R ² (step)
성별	-4.5152**	-0.1178	0.13(1)	-0.8153	-0.0203	
전공	0.1592	0.0032	0.03(2)	-1.0165	-0.0252	
학년	-0.7091	-0.0378		2.1455**	0.1152	0.03(3)
경제상황	1.0168	0.0496		0.7909	0.0395	
종교	4.3751**	0.1038		0.5347	0.0113	
자원봉사 경험	1.5355	0.0395		1.0801	0.0771	
노모-손자녀 간의 친밀도	접촉횟수(친조모)	4.0477**	0.01(6)	-3.6931**	-0.1577	0.04(2)
	(외조모)	-2.0089	-0.0632	0.3933	0.0174	
현재 조모와의 동거여부	(친조모)	-0.3578	0.0917	2.8032*	0.1512	0.01(4)
	(외조모)	-0.1243	0.0035	1.6072	0.0859	
과거 조모와의 동거경험	동거 기간	2.1940	0.0032	8.4841	0.1968	
	동거 기간	8.1521***	0.2069	7.1886	0.2222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	8.5531***	0.3441	0.02(3)	8.4859***	0.3323	0.11(1)
	Constant	63.85		Constant	47.83	
	R ²	0.21		R ²	0.19	
	F value	5.24***		F value	5.14***	

가변수화(Dummy) 성별 : 남=0, 여=1
 전공 : 자연대=0, 그 이외=1
 종교 : 무=0, 그 이외=1
 자원봉사경험 : 무=0, 유=1
 현재 친조모와의 동거여부 : 동거=0, 그 이외=1
 현재 외조모와의 동거여부 : 동거=0, 그 이외=1
 과거 조모와의 동거경험 : 동거=0, 그 이외=1

*p<05, **p<.01, ***p<.001

정적일수록, 동거기간이 길수록, 남학생일 때, 친조모와의 접촉횟수가 많을수록, 종교를 가진 사람일수록 조모와의 친밀감은 높았다.

미국대학생들의 조모와의 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beta=0.3323$), 친조모와의 접촉횟수($\beta=-0.1577$), 학년($\beta=0.1152$), 현재 친조모와의 동거여부($\beta=0.1012$)의 순이었고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19%이었다. 한국대학생들과 마찬가지로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가 11%의 가장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어 영향력이 많은 변인으로 밝혀졌다. 즉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친조모와의 접촉횟수가 적을수록, 고학년일수록, 현재 친조모와 별거할 때 노모와의 관계는 친밀하였다.

V. 결 론

조모-손자녀 관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는 의미있고 특별한 인간관계이다. 특히 저 출산과 고령화는 조모가 되는 시기를 과거보다 앞당기고 있으며 손자녀와의 관계는 그 시기만큼 늘어나 조모-손자녀 관계의 지속기간은 예전보다 늘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핵가족화로 인해 가족 내에서 제공되는 정서적 지지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는 현실에서 조부모-손자녀 간의 상호작용을 촉진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겠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과 미국의 대학생들이 노인과 노화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태도는 조모와의 친밀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대학생들의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점수는 64.8점이었으며 미국대학생들의 태도점수는 70.1점으로 미국대학생들의 태도점수가 한국대학생들의 태도점수보다 더 높았다. 이들 점수는 중립적인 태도점수인 50점~70점 사이에 위치하거나 약간 높은 점수로 한·미 대학생들의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는 중립적이거나 다소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한편 한·미 대학생들의 조모-손자녀 간의 친밀감의 정도에 있어서는 한국대학생의 친밀감 점수가 103.9점, 미국대학생들은 117.6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점수는 친밀감 점수의 중앙치인 90점을 상회하는 점수로 조모에 대한 친밀감은 양국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모를 혈연관계로 세분하여 살펴볼 때 한국대학생들은 친조모에 대해서는 50.8점이고 외조모에 대해서는 53.1점으로 외조모에 대해서 더 높은 친밀감을 지니고 있었다. 미국대학생들 역시 친조모에 대해서는 56.8점, 외조모에 대해서는 60.8점으로

외조모에 대해서 더 많은 유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친조모와 외조모 모두에서 미국대학생들이 한국대학생들보다 조모와의 관계가 더 밀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대학생들은 성별($F=7.72$), 종교($F=6.92$)에 따라 집단 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으며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r=.3817$), 조모와의 동거기간($r=.2453$), 친조모와의 접촉빈도($r=.1752$)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종교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종교가 없는 학생보다 그리고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조모와의 동거기간이 더 길수록, 친조모와의 접촉빈도가 더 많을수록 조모와의 유대감은 더 높았다.

미국대학생들은 현재 친조모와의 동거여부($F=4.00$)에 따라 집단 간에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으며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r=.3370$), 친조모와의 접촉빈도($r=.1890$), 학년($r=.1312$)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친조모와 별거하고 있는 대학생들이 동거하고 있는 대학생들보다 조모와의 관계는 긍정적이었으며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친조모와의 접촉빈도가 낮을수록, 고학년일수록 조모와의 관계는 친밀하였다.

셋째, 한국대학생의 조모와의 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beta=0.3441$), 동거기간($\beta=0.2069$), 성별($\beta=-0.1178$), 친조모와의 접촉횟수($\beta=0.1061$), 종교($\beta=0.1038$)의 순이었으며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21%이었다. 그 중에서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는 13%의 설명력을 나타내어 영향력이 가장 높은 변수로 나타났다. 즉,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동거기간이 길수록, 남학생일 때, 친조모와의 접촉횟수가 많을수록, 종교를 가진 사람일수록 조모와의 친밀감은 높았다.

미국대학생들의 조모와의 친밀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은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beta=0.3323$), 친조모와의 접촉횟수($\beta=-0.1577$), 학년($\beta=0.1152$), 현재 친조모와의 동거여부($\beta=0.1012$)의 순이었고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19%이었다. 그 중에서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가 11%의 가장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어 영향력이 많은 변인으로 밝혀졌다. 즉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친조모와의 접촉횟수가 적을수록, 고학년일수록, 현재 친조모와 별거할 때 노모와의 관계는 친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 및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한·미 대학생들의 조모와의 친밀감에 가장 영향을 미친 변인은 대학생들의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로 나타났다. 따라서 조부모와의 친밀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노인과 노화에 대해 편견이나 고정관념으로 바라보지

않고 노인의 특성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인간발달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는 초·중·고의 교육기관에서 인간발달에 관한 교과목을 정규과목으로 채택하여 인간노화에 관한 지식을 전달할 뿐 아니라 대학에서도 노인관련 교과목을 교양과목으로 채택하여 전공여부와 관계없이 수강하도록 함으로써 노화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 선행연구가 부모가 갖는 태도가 손자녀가 지각하는 조부모와의 친밀감에 결정적 변인이고 특히 어머니의 태도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변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어 중간세대인 부모세대에 대한 노인관련 교양강좌나 교육을 실시하여 조부모-손자녀 관계의 완충자로서 역할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조부모는 손자녀의 여러 심리·정서적 적응에 중요한 가족자원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자녀들에게 어린시기부터 노인공경이라든지 예절교육 등을 행함이 중요하다 하겠다.

역시 노인세대에 대해서도 손자녀 관계를 비롯하여 다른 세대와의 교류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이나 기술을 안내하거나 교육시키는 자료나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 예로 미국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손자녀 양육에 대한 조부모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효율적인 교육 및 상담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기혼여성의 사회진출이 많아짐에 따라 조부모가 아동 양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증가되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손자녀 양육과 관련된 조모에 대한 교육지원체계가 구체화되어 세대 간 간격을 좁히고 가족구성원 간에 긍정적인 유대감 형성을 모색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덧붙인다면 노인들도 젊은 세대와 교류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사고와 가치관을 재사회화하는 노력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노인들에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대학생들의 경우에는 조모와의 동거기간이 길고 접촉빈도가 많을수록 조모와의 친밀감이 많아진다는 본 연구결과를 볼 때 세대 간에 다양한 활동을 통해 조부모와의 의미있는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조부모와의 접촉빈도를 늘이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2006. 5.)에 발표한 '유치원에 다정한 할머니 손길'이라는 프로그램의 마련이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조부모가 부재하거나 멀리 떨어져 사는 경우에는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어 수양조부모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도 있다. 그리고 노인회관, 지역사회복지관, 경로당, 노인대학 등에 젊은 세대가 함께 참여하여 노년층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공유활동을 늘이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노화과정에 대한 올바른 이

해를 통하여 노인에 대한 차별적 편견과 고정관념을 없애며 젊은 세대는 노인들의 경험을 전달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신에게 다가올 노년기와 노화를 이해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대비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가 될 것이다. 한편 노부모와 동거하는 가족의 장점을 강조하고 이들 가족에 대한 국가적인 혜택을 부여하여 노인동거를 촉진하는 방안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리고 이들 가족에 대해서는 세대 간에 친밀감을 유도할 수 있는 가족생활프로그램, 가족관계향상 프로그램, 고부관계향상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노인세대와 젊은 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문화가 서로 다른 한·미 양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는 어떠하며 그들이 조모와 갖는 친밀감의 정도는 어떠한지 조사·비교하였다. 그러나 미국 대학생의 표집을 공동체 중심의 대가족을 지향하는 원리주의를 강조하는 몰몬교의 본당이 있는 지역에서 행한 관계로 '효'를 중시하며 노인을 공경의 대상으로 삼았던 한국대학생들보다 오히려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라든지 조모와의 친밀감보다 높은 결과를 가져온 것 같다. 따라서 문화 간의 비교를 하나의 목적으로 했던 본 연구가 표집지역이 갖는 특성 때문에 결과해석에 어려움을 가져 왔다. 또한 양국 대학생들의 비교를 한국과 미국에 소재한 S대학교와 U대학교 학생만을 표집의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를 국가 간의 비교로 일반화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조모를 친조모와 외조모로 구분하지 않고 조모와의 관계로 한정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더 정밀한 해석을 위해서는 이를 나누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조모가 생존하지 않은 경우 과거 조모와의 관계경험을 유추하여 친밀감을 측정하였다는 점을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들 수 있다.

이상으로 본 연구는 조모-손자녀 간의 친밀감이 대학생 손자녀가 갖는 노인과 노화에 대한 태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를 토대로 다음 연구에서는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을 보완하여 조모-손자녀 간의 유대감을 향상시키는 전략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 접수일 : 2006년 06월 23일

□ 심사일 : 2006년 07월 29일

□ 심사완료일 : 2006년 10월 12일

【참 고 문 헌】

- 고영복(1983). **전통사회의 효 개념과 현실적 과제**. 아산사회복지재단. 49-58.
- 김연수(1994). **부모-조부모 관계와 손자녀-조부모 친밀도가 청소년의 노인과 노화에 대한 사실 인지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윤정·정선아(2001).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 : 노인에 대한 인식과 행동 간의 관계 규명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6), 173-183.
- 김은경(2003). **조부모 관련변인이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3(3), 63-77.
- 김재은(1974). **한국가족의 심리**. 서울: 이화여대 출판부.
- 김태현(2005). **노년학**. 교문사.
- 김혜경(1997).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태도와 조부모와의 세대차이에 관한 연구**. 미국 이민 가족 내의 한국청소년과 미국청소년 간의 비교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4), 65-79.
- 박경란·이영숙(2001). **대학생이 갖고 있는 노인에 대한 고정관념 분석**. **한국노년학**, 21(2), 71-83.
- 박의순(1990). **대학생이 지각한 조부모와의 관계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 보건복지부(2003). **보건복지통계연보**.
- 배경미(1988). **조부모 역할에 관한 기초 연구**. 성균관대 석사학위 논문.
- 백문화(1992). **부모 및 조모와의 관계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 민하영(2004). **손자녀가 지각하는 조모/외조모의 사회적 지지 특성과 학령기 아동의 심리적 적응**.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3), 23-34.
- 서동인(1989). **손자녀가 지각한 조모와 손자녀와의 접촉과 조모의 역할수행**. **한국가정관리 학회지**, 7(2), 45-60.
- (1991). **손자녀가 지각한 조모와의 심리적 친밀도 : 친조모와 외조모의 비교연구**. 경희대 박사학위논문.
- 서병숙·김수현(1999). **대학생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 연구**. **한국노년학**, 19(2), 97-111.
- 신귀연(1995). **아동과 청소년이 지각한 노인 이미지**. 국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신기영(1991). **중년기 주부의 위기감과 사회관계망 지원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학위 논문.
- 옥은진(1990). **노인문제에 대한 세대 간의 인식차 연구**. 상명여대 석사학위 논문.
- 유안진(1994). **한국의 전통 육아방식**.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윤성혜(1990). **청년, 중년, 노년층의 노인에 대한 인식 비교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윤진·조석미(1980). **가족구성원에 대한 노인의 심리적 거리**. **한국노년학**, 제 1집, 75-85.
- 이미숙·조병은·강란혜(2004). **학동기 손자녀에 대한 조모의 역할수행: 취업모가족과 비취업모 가족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42(4), 69-84.
- 이선자(1989). **연령 단계별로 본 노인에 대한 태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신숙·Sonia. S.(2005). **한·미 대학생의 노인과 노화에 대한 지식 및 태도 비교 연구**.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0(3), 195-218.
- 이영숙·박경란(2000). **청년기 손자녀와 조부모의 공유활동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0(3), 1-16.
- 정미경(2005). **조모교육 프로그램 참여경험이 조모의 역할 인식에 미치는 효과**. **한국노년학**, 25(3), 155-175.
- 조명희(1987). **청소년의 노인에 대한 사회심리적 태도 분석**. **지역환경**, 5, 73-87.
- 조석미(1981). **조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노년층의 의식구조 -대구시 중류층 노인을 중심으로-**. 영남대 석사학위 논문.
- 차용은(1980). **노인에 대한 대학생의 태도 연구**. **전주대학교 논문집**, 9(2), 239-262.
- 최춘혁(1992). **노인과 노인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최혜지(2004). **손자·녀 양육형태가 노부모와 성인자녀의 세대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4(3), 31-49.
- 한정란(2000).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태도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0(3), 115-127.
- 홍숙자(2004). **노년학개론**. 하우.
- Atchley, R.(1988). *Social forces in later life*. N.Y.: Wadsworth Pub. Co.
- Baranowski, M.(1982). *Grandparent-adolescent relations; Beyond the nuclear family*. *Adolescence*, 17, 575-584.
- Brewer, M. B., Dull, V. & Lui, L.(1981). *Perceptions of the elderly : Stereotypes as prototyp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656-670.
- Butler, R.(1995). *Ageism*. In G. maddox(Ed). *Encyclopedia of aging*. New York : Springer.
- Cartestenses, I., Mason, S. E. & Caldwell, E. C.(1982). *Children'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 An international techniques for a change*. *Educational Gerontology*, 8, 292-301.
- Cherlin, A. J. & Furstenberg, F. F.(1986). *The New American*

- grandparent ; A place in the family, a life apart.* New York; Basic Books.
- Creasey, G. & Koblewski, P. J.(1991). Adolescent grandchildren's relationships with maternal and paternal grandmothers and grandfathers. *Journal of Adolescence*.
- Franks, L. J., Hughes, J. P., Phelps, L. H. & Williams, D. G. (1993). Intergenerational influences on midwest college students by their grandparents and significant elders. *Educational Gerontology*, 19(3), 265-272.
- Hagestad, G.(1985). Continuity and connectedness. In V. Bengtson & J. Robertson(Eds.). *grandparenthood ; Traditional and emergent perspectives*. 31-48. Beverly Hill: Sage.
- Hartshorne, T. S. & Manaster, G. J.(1982). The relationship with grandparents ; contact, importance, role concep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 Human Development*, 15, 233-245.
- Hawkins, M. J.(1996). College students' attitudes toward elderly persons. *Educational Gerontology*, 22(3), 271-280.
- Hoffman, E.(1980). young adults' relations with their grandparents ; An exploratory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10, 299-310.
- Hummert, M. L.(1990). Multiple stereotypes of elderly and young adults : A Comparison of structure and evaluations. *Psychology and Aging*, 5(2), 182-193.
- Hummert, M. L., Garstka, T. A. & Shaner, J. L.(1997). Stereotyping of older adults : The role of target facial cues and perceiver characteristics. *Psychology and Aging*, 12(1), 107-114.
- Janelli, L. M.(1988). depictions of grandparents in children's literature. *Educational Gerontology*, 14(3), 193-202.
- Kahana, E. & Kahana, B.(1971). Theoretical and research perspectives on grandparenthood. *Aging and Human Development*, 2, 261-268.
- King, V. & Elder, G. H.(1995). Grandparenthood as a social construction:Multiple perspectives. In Szinovacz, m. E. (1998 ed.) *Handbook on Grandparenthood*. Greenwood Press.
- Kivett, V. R.(1985). Grandfathers and grandchildren ; Patterns of association, helping, and psychological closeness. *Family Relations*, 34, 565-571.
- Kivnick, H. Q.(1982). *The meaning of grandparenthood*. Ann Arbor: UMI research press.
- Kogan, N.(1961). Attitude toward the old people: The development of a scale and an examination of correlation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62, 44-54.
- Kornhaber, A.(1985). Grandparenthood and the "New Social Contract". In Bengtson, V & Robertson, J. (Eds.). *Grandparenthood*. Beverly Hills; Sage Pub.
- Kornhaber, A. & Woodward, K. L.(1981). *Grandparents/ grandchildren ; The vital connection*. Garden City, NY: Anchor press/doubleday.
- Matthews, S. & Sprey, J.(1985). The impact of divorce on grandparenthood ; An exploratory study. *The Gerontologist*, 24, 41-47.
- Mueller, M. M., Wilhelm, B. & Elder Jr, G. H.(2002). Variations in grandparenting. *Research on Aging*, 24(3), 360-388.
- Palmore, E. B.(1999). *Ageism : Positive and negative*. New York : Springer.
- Pinquart, M. & Wenzel, S.(2000). Changes in attitudes among child and elderly adults in intergenerational group work. *Educational Gerontology*, 26(6), 523-540.
- Roberto, K. A.(1990). Grandparent and grandchild relationships. In T. H. Brubaker(ed). *Family relationships in later life*.(2nd ed.). Sage Pub.
- Robertson, J.(1975). Interaction in three generation families.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6, 103-110.
- _____ (1978). Significance of grandparents ; Perceptions of young adult grandchildren. *The Gerontologist*, 16, 137-140.
- Rosencranz, H. A. & McNevin, T. E.(1994). A factor of attitudes toward the aged. *The Gerontologist*, 9, 55-59.
- Rossi, A. S. & Rossi, P. H.(1990). *Of human bonding: Parent-child relations across the life course*. NY: Aldine de Gruyter.
- Rowe, J. & Kahn, R.(1998). *Successful aging*. New York : Pantheon Books.
- Sanders, G. F., Montgomery, J. E., Pittman, Jr. J. F. & Balkwell, C.(1984). Youth's attitudes toward the elderly.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3(1), 59-70.
- Thorson, J. A.(2000). *Aging in a changing society*(2nd ed.). Brunner/Mazel.
- Tinsley, B. & Parke, R.(1983). Grandparents as support and socialization agents. In M. Lewis(Ed.), *Beyond the dyad*. New York Plenum.

- Troll, L. E.(1983). Grandparent; the family watchdogs. In T. H. Brubaker (9 Ed.). *Family relationships in later life*. Beverly Hills. CA: Sage Pub.
- Walker, A. J.& Thompson, L(1983). Intimacy and inter-generational aid and contact among mothers and daught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841-849.